

해방기 자기고백 소설 연구(I)

노 상 래*

<차 례>

I. 서 론

IV. 「해방전후」에 나타난 자기고백의 특성

II. 자기비판의 소설적 문제 제기

V. 결 론

III. 문단인의 자기비판

I. 서 론

해방 된 조선에서 문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 확립이었다. 그러나 해방이 준비된 것이 아니었을뿐더러 자기 투쟁만으로 얻어 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 확립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¹⁾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 대부분의 문인들은 정치에서 멀어지려 했으며, 자신의 주장을 곳곳이 지켜가려 하지 않았다. 끝내는 민족적 최절을 일삼는 자가 속출했고, 다과(多寡)나 경중(輕重)의 차이는 있었지만 민족적 양심에 떳떳할 수 있는 문인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때문에 <새로운 날>이 꿈같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인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게 되었다. 투명하지 못한 정세에서 문인들은 사태를 전망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에 민족문학 진영과 구카프 계열의 입장이 달랐으며, 또한 구카프 계열 속에서도 해소파와 비해소파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 문인들의 정치와 관련한 해방 전의 문학적 행태가 제각각이었기

* 영남대학교 강사

1) 조선의 해방이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사회주의자들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선공산당은 1945년 8월 테제에서 조선의 해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이에 조선의 해방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민족의 주관적 투쟁적 힘에 의해서보다도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 소·영·미·중 등 연합국 세력에 의하여 실현된 것이다. 즉, 세계문제가 해결되는 마당에 따라서 조선 해방은 가능하였다.”(「조선공산당 1945년 8월테제」(송기환·김외곤 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 태학사, 1991), 213쪽)

때문에 자기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도 까다로운 문제였다.

해방된 조국에서 문인들이 거시적인 입장에서 자기 자리 확보도 필요했지만 미시적인 입장에서 자기자리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기 반성이었다. 이 글은 바로 그 점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문인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자기 반성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 반성의 형태 속에 숨어있는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다루어서 해방된 조국의 민족적 자기비판이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아울러 자기비판이 가지고 있는 허실을 따져보려 한다.

이같은 논의가 필요한 것은 해방 조국의 운명과 양심 회복이 밀접한 상관에 있기 때문이다. ‘모자도 정복도 패검도 다 옛 것’이지만 ‘다만 완장 한벌로써’²⁾ 여전히 해방된 조국의 ‘순사’로 행세하는 류의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판에 자기 비판과 양심 회복은 향후 조선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II. 자기비판의 소설적 문제 제기

해방을 맞은 지식인들의 첫 과제는 자기 반성이었다. 특히 섬세한 내면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는 문인들에게 있어 자기 반성은 향후 문인으로서의 행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자기 반성은 양심 선언을 의미한다. 민족 앞에 완전히 알몸을 드러내 놓지 않은 어떤 글쓰기도 죽음보다 어두운 36년을 견디어낸 조선인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누가 반민족자인지, 어떤 행위가 반민족적 행위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당 부분 외세에 의해 주어진 해방이었기 때문에 죄인에게 ‘돌을 던질’ 단죄의 주체 세력도 분명하지 않았다. 물론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패러다임이 당대 없었던 것도 아니다.

(一) 親日派

1. 有産者及特權者階級 2. 貴族院議員 3. 中樞院參議 4. 官選道議員 5. 日本帝國時代の幹部及文武官吏 6. 日本帝國時代の憲兵警官 7. 日本帝國時代戰爭協力者 8. 其他 親日派(以上中 惡質分子)

(二) 民族叛逆者

1. 賣國奴 賣國者 經濟攪亂者 2. 愛國運動戰線에서 背反한 者 3. 民族統一戰線攪亂者 4. 惡質通譯及貪官汚吏³⁾

2) 채만식, 「맹순사」(《백민》 1946. 3), 14쪽

3) 「親日派와 民族叛逆者의 範圍」(《建設》, 1945. 12), 14쪽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반민족자나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범위는 불분명했다. 따라서 반민족자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것도 반민특위가 구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해방기 3년 동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식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인들은 자기 반성이 반드시 필요했다.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고백하고 민족의 심판대에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글로써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같은 형태를 빈 다른 방법으로.

자기 반성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법의 이름으로 단죄되는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차피 반민족적 행위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법의 심판보다도 훨씬 더 폭 넓고도 어려운 것이 개인 차원의 자기 반성이다.

이태준이 발언한 말로서, “일본놈 때도 출세를 하고 해방되어서도 또 선두에 서려 하다니...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런 분자들을 빼지 않으면 자기네는 이 준비위에 참석할 수 없다고 잘라서 말하였다. 그리고 면전에서 Y씨와 L씨가 지적되었다. 그때 Y씨가 한 말이 “정치인들에 비기면 우리 문학인들의 한 일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들 의사가 그렇다면 물러나지요”하고 퇴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내가 보기에는 그때 난처한 자리에 선 사람은 임화라고 보았다. Y씨더러 하는 말이 “따지고 보면 누구나 다 허물 없는 사람이 있겠소마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보니 얼마동안 좀 있다가 다시 같이 일할 기회를 봅시다.”하고 어물어물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하여튼 그렇게 하여서 Y씨와 L씨 두 사람이 퇴장을 하고 돌아갔다.⁴⁾

“따지고 보면 누구나 허물 없는 사람이 있겠소마는”이라는 임화의 말의 의미에서 ‘Y씨’와 ‘L씨’를 친일파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던 이태준조차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이태준에게 비난받았던 ‘Y씨’와 ‘L씨’는 유진오와 이무영을 지칭함이 틀림없다.⁵⁾ 그들의 친일 행위는 조선문인보국회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에 비기면 우리 문학인들의 한 일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들의 항변에는 스스로는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내

4) 백철, 『문학자서전』 후편(박영사, 1975), 300쪽

위의 내용은 1945년 8월 17일 원남동에서 창경원 쪽으로 돌아가는 모퉁이의 정육점 이층에서 문인 30여명이 모여 해방문단에서의 문인들의 역할에 대해 나눈 대화의 일 부분이다. 이 자리에는 임화 · 이원조 · 유진오 · 이무영 · 엄홍섭 · 이태준 · 김남천 · 백철 등이 참석하고 있었다. (299쪽 참조)

5) 그와 같은 사실은 백철이 말한 참석자의 명단과 조선문인보국회 간부의 명단을 대조해 보면 알 수 있다. 조선문인보국회의 간부 명단과 그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임종국의 『친일문학론』(평화출판사, 1963)을 참조할 것.

면 세계가 있다. 그 내면 세계에는 친일 행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자리하고 있다.

해방 정국에서의 자기 비판은 이처럼 풀기 힘든 실타래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인들이 민족의 양심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었던 상황에서 그들은 정치와의 역학 관계에 맞물려 민족 앞에 나서고 싶어 했고, 나서기도 했다. 그런 움직임을 가장 먼저 보인 무리들은 이태준, 임화, 김남천, 안희남, 이원조 등이었음을 홍효민은 알려주고 있다.⁶⁾ 그러나 소위 'Y씨'와 'L씨'로 대표되는 부류의 사람들도 침묵하거나 침잠해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 분명한 행보를 하고 있었다.

그날, 그러니까 16일 오후 네시경 신문사로 내게 전화가 걸려왔다. 팔봉으로부터였다. 꽤 흥분해서 떨리다시피하는 목소리였다. 곧 만나자는 것이었다. 다들 모여서 새로운 문학운동의 깃발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었다. 「그래 지금 어디서 전화를 하시나요」하고 물었더니 「지금 文人報國會 자리에서 懷月과 같이 전화 걸고 있는데 文人報國會라는 간판은 어제 오후에 벌써 떼어버리고 그대신 이젠 새로운 우리 간판을 갈아붙이고 새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오?」하고 八峯은 프롤레타리아文學때에 많이 쓰던 「새로운 술은 새로운 푸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을 붙였다. 그때 내가 전화를 받고 있는 감상은 조금도 八峯의 말을 불신하고 싶은 것은 없었다. 八峯이 말하는 그대로의 심정이라고 공감을 하면서도 어딘지 성급 「그렇게 하십니까. 내 곧 가지요」하고 대답이 나오질 않았다. 이것은 우선 내 개인의 양심의 저항이었고, 둘째는 八峯이나 懷月의 입장이 그렇게 당당하게 앞장을 서서 새 간판을 내세울 계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文學運動의 모델리티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내 솔직한 심정을 八峯에게 전달하였다.⁷⁾

백철의 판단으로는 앞장을 서서 새 간판을 내세울 계제가 되지 못하는 팔봉이나 회월조차도 해방 다음날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홍효민이나 백철의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해방 정국에서의 문인들의 행보는 자기비판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기사 백철처럼 '개인의 양심의 저항'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 부류도 있었다. 하지만 환희의 기쁨이 대부분의 문인들에게 과거사를 잠시 잊게 만들었거나 해방이라는 민족적 거사가 개인적 친일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라도 한 것인지 대부분의 문인들은 해방 다음 날부터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게 움직인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과오를 일제시대에 저질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는 일제 말기의 대표적인 친일신문 《每日新報》의 부사장이었던 李相協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6) 『藝術年鑑』(예술신문사, 1947. 5), 4쪽

7) 백철, 『문학자서전』 후편, 294~5쪽

오늘의 소감은 나와 같은 특수한 개인의 立場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朝鮮民族 전체의 차원에서 감격할 일입니다. 내 개인의 처지가 금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극히 적은 일인 줄 생각합니다.⁸⁾

누가 보아도 친일파인, 친일신문의 부사장이라는 ‘특수한 개인’인 이상협에게서 ‘조선 민족 전체’ 차원에서의 감격에 동참할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임화류>의 문인들 뿐만 아니라 <회월류>의 문인들까지도 해방정국에서 제각기의 몸짓으로 자신의 감격을 표현하려 했으며, 자기자리 확보를 위해 움직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많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자기 비판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방 정국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쪽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해방의 기쁨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아울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과거에 눈이 닿자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일제 잔재의 청산에 자연스럽게 눈이 갔다. 자기 비판의 소리는 높아갔지만 때로는 그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 왔다. 그러한 양상을 해방기에 쓰여진 소설들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자기비판의 목소리는 매우 다양한 파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이해 관계 때문에 해방에 거는 기대도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비판을 해야되는 <경우의 수>도 각각각색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몇 가지로 수렴한다면 다음의 목소리들이 될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또 하나는 일제 잔재의 청산이다. 소설에 나타난 일제 잔재의 청산 문제는 채만식의 「맹순사」에서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모자도 정복도 패검도 다 옛것이요, 다만 완장 한벌로써, 해방조선의 새순사”⁹⁾가 된 맹순사의 눈에 비친 해방 된 조국은 여전히 “생사람 죽이구 하긴 매일반”인 곳이다. 8년 순사질에 아내의 ‘유-통 치마’ 한 벌 해준 적이 없는 ‘맹순사’는 스스로 ‘청백관’이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생각에는 “큰 것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따라서 부자가 되지를 아니하였으니” 청백리라는 것이다. 상대적 양심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맹순사’는 해방된 조국에서도 여전히 순사 완장을 거머쥔다. 그런데 어느날 살인강도 ‘강봉세’가 느닷없이 순사가 되어 나타난다. 그의 눈에 비친, ‘경찰학교 졸업생’ 출신의 위장된 ‘진짜 순사’ 강봉세가 득세하는 세상은 해

8) 백철, 위의 책, 290쪽

9) 채만식, 「맹순사」(《백민》 1946. 3), 14쪽

방 전이나 해방 후나 못 살 곳이었다. 이 작품에서 눈여겨 볼 것은 맹순사를 통해 고발되는 ‘강봉세’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부류의 독세이다. 일제시대의 살인강도가 느닷없이 해방 조국에서 살인강도를 잡아들이는 순사가 된 “畫出魍魎之圖”¹⁰⁾, 즉 낫도깨비 같은 세상이 ‘맹순사’는 못마땅한 것이다. ‘강봉세’는 조선인들에게 유·무형의 살인을 범하던 민족반역자를 지칭한다고 볼 때 그들이 독세하는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다. ‘맹순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맹순사’ 또한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강봉세’류에서 멀지 않은 인물이다. 따라서 ‘강봉세’를 타하기 전에 자기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상대적 양심 우위를 내세우는 ‘맹순사’의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 근원적인 자기비판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행동도 바람직한 해방 조국을 건설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맹순사’가 지적했다면 이 소설은 해방기를 대표하는 소설이 되었을 것이다.

「강변」(최태웅, 《대조》 1946. 6)의 ‘A’, 「미스터 방」(채만식, 《대조》 1946. 6)의 ‘미스터 방’, 「평양조전」(이무영, 《백민》 1946. 12)의 ‘평양씨’, 「황혼」(김영수, 《개벽》 1947. 8))의 ‘가네모도상’, 「준동」(전홍준, 《개벽》 1948. 8)의 ‘정태민’과 ‘사장’ 등도 자기비판을 철저히 해야 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세하고 있는 부류들이다. 일제 잔재의 청산은 자기 양심 회복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가 재건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마음 속 죄의식까지 고발될 때 가능한 것임을 해방기 소설은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방 정국에서 풀어야 했던 중요한 숙제는 귀향과 관련된 의식주의 해결 문제였다.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일제에 의한 가혹한 수탈로 생존의 위협을 뼈저리게 느꼈던 바, 해방된 조국에서의 첫째 가는 바램은 당연히 먹고, 입고, 편안히 쉬일 공간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작금 신문에서 이야기되는 바에 의하면 동양척식회사를 위시한 일본인 소유의 토지는 조선이 가지고 있는 경작 면적의 약 8할이 된다고 합니다. 이 토지는 약 사십 년 동안 그들의 교묘한 정책에 의해서 우리들로부터 수탈한 것들입니다. 간도로 쫓기고 만주벌판으로 밀리고 열하로 흘러가고 품팔이를 목적하여 현해탄을 건너간, 토지로부터 이탈된 무수한 농민들의 행렬은, 여러분, 이 땅의 하나의 고유한 풍경이 아니었습니까.¹¹⁾

10) 「맹순사」에는 ‘畫出魍魎之圖其一’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11) 김남천, 「문학의 교육적 임무」(송기한·김외곤 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 1, 태학사, 1991), 37쪽

토지로부터 이탈된 무수한 농민들의 행렬이 '고유한 풍경'이 되어버린 조선에서 땅의 회복은 당연히 해방의 제일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45년말 남한 농민의 존재 양태를 지주·소작 관계를 통해 살펴보면 전농가 260만호 가운데 농업노동자와 순소작이 101만호, 자소작이 71만 6천호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소작농의 경우도 그 반 이상이 50% 이상의 소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가가 전농가의 85%나 되었던 것이다. 이를 다시 토지 소유의 측면에서 보면 총경지 232만 정보 가운데 33.6%인 83만 정보만 직접 생산자인 경작 농가의 소유지였고, 그 소유지조차도 밭이 많은데 비해, 생산성이 높은 논 79% 이상은 지주 소유로 되어 있었다. 아울러 해방 후 농촌의 계급 구성 비율로 보면 빈농계층이 절대 다수인 72% 이상(156만호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¹²⁾ 따라서 해방직후의 한국 사회는 해방전에 가지고 있던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적 관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를 포함시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가중되는 것이다. 결국 조선의 독립은 외세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대외적인 문제와 소작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대내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였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은 농민들의 이와 같은 기대를 저버리고 있었다. 그것을 극명히 드러내 보인 작품이 채만식의 「논이야기」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한생원'은, 자신의 피땀으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취로 굶주려야 했던 당시 소작인과는 달리 술과 노름으로 땅을 잃어버린 인물이다. 그런 '한생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소작농들이 땅의 회복에 대해 거는 기대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착취에 의한 실지(失地)와 방탕에 의한 실지는 다른 각도에서 실지 회복을 바라 봐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해방은 한생원 같은 사람에게도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만든다. 그러나 그 기대는 기대에서 그치고 실지 회복은 요원해져 갔다. 그래서 한생원은 독립되어도 "신통할 것이 없는" 조국에 '도루 나라 없는 백성'이기를 자처한다.

독립?

신통할 것이 없었다.

독립이 되기로하니 가난뱅이 농투산이가 벼란간 나으리 주사될 리 만무하였다. 가난뱅이 농투산이가 남의 세토(貰土=小作) 얻어 비지땀 흘려가면서 일년 농사지어 절반도 넘는 도지(小作料) 물고 남겨지로 굶으며 먹으며 연명이나 하여 가기는 독

12) 박혜숙, 「미군정기 농민운동과 전농의 운동노선」,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8), 356~7쪽

립이 되거나 말거나 매양 일반일 터이었다.¹³⁾

「나라가 무어 말라 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무얼 해준 게 있길래 이번엔 일인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저이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게 나라야?」

「일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거야 당연한 일이지.」

「당연?」

「그렇죠」

「흥 가만두 두면 저절로 백성의 것이 될걸 나라 명색은 가마니 았었다 어디서 튀어나와 가지구 걸 뺏아서 팔아 먹어? 그 따위 행사가 어딴다든가?

(...중략...)

「일없네. 난 오늘버튼 도루 나라없는 백성이네. 제-길 삼십육 년두 나라없이 살아왔으려드나. 아-니 글세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무얼 좀 고마운 노릇을 해주어야 백성두 나라를 믿구 나라에다 마음을 붙이구 살지.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아서 팔아먹은 게 나라 명색야?」¹⁴⁾

한생원의 말처럼 독립된 나라에서마저 ‘백성이 차지할 땅 뺏아서’ 다시 팔아먹는다면 그 나라는 “독립이 되거나 말거나 매양 일반일 터”이었다. 대다수의 농민들이 아마도 ‘한생원’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특히 이태준의 「농토」에서 그러주듯이 시간이 흘러 북한에서의 성공적인 토지개혁을 목격하게 될 남한의 농민들은 그 불만이 점점 증폭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한생원의 눈에 비친 해방정국에서의 토지 개혁은 기층민의 바람과는 상치되었다. 그리고 한생원의 지적은 적절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속의 한생원이 실지 회복을 바라기 전에 먼저 문제삼아야 될 것은 스스로의 양심 회복이다. 자신의 과거 생활에 대한 어떤 반성도 내비치지 않은 채 해방이 되었으니 <무조건> 자기 땅을 돌려달라면 그런 목소리에 대한 비난의 소리 또한 높아갈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한생원’은 우선적으로 자기비판을 먼저 했어야 했다.

이외에 백두성의 「땅」(《예술문화》 1946. 1), 최정희의 「풍류잡히는 마을」(《백민》 1947. 9), 안희남의 「농민의 비애」(《문학》 1948. 4), 홍구의 「뒷골 방천 사람들」(《백제》 1947. 1) 등도 공히 해방된 조국에서의 토지 문제와 관련된 자기 비판의 전제를 문제삼을 수 있는 작품들이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신식민지화에 대한 우려이다. 해방의 기쁨은 새로운 시련의 출발이었다.

13) 채만식, 「논이야기」(『해방문학선집』, 종로서원, 1948), 254쪽

14) 채만식, 「논이야기」, 283~4쪽

조선의 민주주의적 건설을 위하여 소련은 소련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각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승인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결국 소련식이요 미국식이요 조선식은 아닌 것이다. 소련에 맞지않는 미국식, 미국에 맞지 않는 소련식, 피차에도 맞지 않는 각기 양식을 어떠한 근거 밑에서 조선사람에게 요구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미·소 양국은 조선에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¹⁵⁾

미·소 양국에 의한 조선의 신식민지화에 대한 우려는 비단 정치가의 몫만은 아니었다. “46년도 초부터 점차 노골화된 식민지화 정책은 항거의 정신을 불타게 했고 인민이 모든 감파니이를 통하여 급속한 템포로 성장하고 있는 눈부신 속에서 자기의 낙후성을 통감한 것”은 ‘작가’들도 마찬가지였다.¹⁶⁾

「아, 금년엔 모기가 한 마라도 없어, 신동한 일이야,
여섯째 구멍에 사는 노인이 갑자기 화제를 돌려 버렸다.
「미국 비행기가 공중에서 소독을 쳐서 그렇다지요?」
셋째 구멍의 사나이가 받았다.
「생물의 색끼들 소독이야 주던 말던지 독립이나 얼른 좀 시켜줬을 좋았수다.」¹⁷⁾

「참 아까 들려오는 풍문에는 서울에 아라서 병정과 미국 병정들이 들어 왔대요!」
청년의 말에 일동은 들었던 술잔과 저까락을 털썩 놓으며 놀라는 시선으로 서로 서로 건너다보았다. (…중략…)
「그야 고마운 손님이요 반가운 나그네겠지만 워낙 손님이란 하로 이들이 반가운 법이야,
「암 그렇고 말구. 열흘 묵어 미움 안받는 손님없는 법이지. 주인 이롭게 하는 손님도 없는 법이고……」
「오시는 손님이니 무고히 댕겨가시라고나 해야지」¹⁸⁾

미국도, 러시아도, 일본의 잔재세력도 해방된 조선에 미력도 미치지 않는 해방이라야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무고히 댕겨가기’를 바라는 조선인들의 마음은 절실하면서도 불안하다. 왜냐하면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이근영, 《신천지》 1948. 6)의 ‘운교수’처럼 어용, 순응주의, 권력지향적 기회주의에 몰들어 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중의 생각과는 다른 해방으로 자꾸만 해방 정국이 꼬여갔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방은 어느 하나만에 국한되지 않는 민족 전체의 자기비판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기적 목소리는 높아 자기 몫을 챙기기에 급급했고, 그에 비례하여 해방된 조국에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부류는 늘어만 갔

15) 《동아일보》 1946. 7. 23일자 사설 「미소 협조의 길」

16) 김영석, 「해방 후 우리 문학의 방향—인간 ‘타입’의 창조」(《제일신문》 1948. 9. 7)

17) 김동리, 「월거부족」(《백만》 1947. 3), 41~2쪽

18) 정비석, 「귀향」(『해방문학선집』), 233쪽

다. 이와 같은 현상을 작가적 양심으로 바라봐야 했던 당대 문인들의 자기비판은 해방 정국을 풀어가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III. 문단인의 자기비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해방정국의 흐름은 절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못했다. 채만식이 지적한 것처럼 ‘모자도 정복도 패검도 다 옛 것’이지만 ‘다만 완장 한벌로써’ 일제시대의 순사가 해방된 조국에서도 여전히 행세하는 해방이라면 그 해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방이 되자 많은 조선인들은 꿈을 꾸었다. 가난한 자들은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고, 농토를 빼앗긴 자들은 금방 회복할 줄 알았으며,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들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질 줄 알았다. 모든 이들에게 기회는 골고루 부여된 줄 알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꿈은 깨어졌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던 남의 나라였던, 있었잖아 백성들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이 조금도 없는”¹⁹⁾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정치 현장에서의 화려한 구호들이나 장미빛 환상들은 특정인들만의 몫이었지 대다수의 민중들과는 동떨어져 갔다. 미·소 양국에 의한 신탁통치라는 외부 요인 뿐만 아니라 민족 내부의 분열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었다.

그런 현상이 야기된 원인은 <느닷없이 주어진 해방>, 즉 전혀 준비되지 않은 해방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사실은 어느 외국학자의 지적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한인들은 무엇보다도 독립을 갈망하고 있으며 이것을 당장 원하고 있다. ……서양의 수준에서 보면 한국은 독립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의 정세 밑에서는 그들의 자치 능력이 크게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²⁰⁾

해방된 조국에서 느끼는 기쁨과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열정만 대단하였지 그것을 현실에 구체화 할 준비는 전무했다. 해방 직후 가두에 나붙기 시작한 수많은 벽보들은 그같은 사실을 분명히 해준다. 그 일례를 보자.

—이제 朝鮮民族은 우리의 숙원이던 해방을 얻고 자주독립을 목전에 놓고 있다.

19) 채만식, 「논 이야기」, 261쪽

20)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일월서각, 1986), 276쪽

민족해방과 독립은 곧 문화예술의 그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문학예술의 自由萬歲! 그 자유를 누리고 새 歷史 앞에 大行進의 때가 왔다. 우리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곧 새 역사의 창조과제에 응해야 하겠다. 다들 모여서 이야기하고, 곧 創造作業에 착수해야겠다. 내일(17일)²¹⁾ 오전 10시를 기하여 韓靑빌딩으로 모이라. 우리는 日帝의 앞잡이로 民族을 팔고 있던 文人報國會를 접수하고 그 문 앞에 큰 글씨로 새 文學運動의 大看板을 걸아 붙임시다²²⁾」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새 역사의 창조과제”에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었다. 그러나 ‘창조 작업’을 위한 준비나 자기를 돌아볼 여유는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많은 시행착오는 이미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벽보처럼 대부분의 문인들은 그 다음날 모임을 가졌다.

그 이튿날 8월 17일 오전 열시 벽보에 나와 있는 집합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어서 나는 韓靑빌딩 앞에 당도했다.(………)

韓靑빌딩 앞에 金南天이 서성대고 있었다. 「야 이거 얼마만인가, 그리고 뜻밖인데 난 아직 자네가 北京에 있는 줄 생각했는데……」하고 南天은 意外의 해후를 반겨주었다.

「그런데 왜 들어가지 않고 여기 서 있나?」하고 물었더니 南天의 말이 「지금 윗층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다들 다녀서 판공으로 물려간 모양이야. 문 앞에 略圖가 그려져 있는데 苑南洞 창경원 정문에서 가까운 곳인 것 같애. 여기 약도를 떼 가지고 왔지」 내게 약도를 그린 종이 쪽지를 내보였다. 그러자 李泰俊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이때 만나면 우선 감격적인 감탄사를 발하고 힘차게 악수를 하고 그리고 서로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것을 축하하는 인사가 오고 갔다. 尙虛는 지금 막 강원도 고향으로부터 서울에 도착한 길이라고 했다. 해방이 된 것도 16일 오후에야 전해 듣고 알았다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 集合場으로 가 봅시다」하고 세 사람이 같이 安國洞쪽을 돌아서 秘苑 앞을 지나고 담을 끼고 걸어서 창경원 쪽으로 걸여갔다.²³⁾

이 모임에 참석한 문인은 대략 30명 정도였다. 그러나 이 모임에 참석한 대부분의 문인들은 <자신만의 눈>으로 해방을 투시하고 있었다. 즉 임화·김남천, 이기영·한설야, 박영희·김기진, 이태준, 백철 등은 제각각 다른 눈으로 해방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은 어느 누구도 해방을 예견하지 못했고, 준비되지 않은 해방을 맞았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가 해방 직후의 큰 난맥상의 하나는 “어제까지의 허물은 감쪽같이 숨기고 너 나 할 것 없이 하루 아침에 애국자들로 변신”²⁴⁾을 하는 것이었다. 이

21) 1945년 8월 17일을 의미함.

22) 백철, 앞의 책, 279쪽

23) 백철, 앞의 책, 298~9쪽

24) 백철, 앞의 책, 302쪽

런 현상을 보고 백철은 “나로선 자기 양심이라 할까, 스스로 자기를 비판하는 모럴”²⁵⁾ 때문에 해방 정국에서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렸다. 원남동 모임에 참석한 대부분의 문인들이 거기에 모일 때는 나름대로는 지난 날에는 그렇게 큰 과오는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철이 ‘자기 양심’이나 ‘자기 비판’을 말하고 나선 것은 그 모임에서 ‘L씨’와 ‘Y씨’를 비난하고 나선 이태준 또한 ‘자기 양심’에 얼마나 떳떳할 수 있었을까를 묻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철은 대부분의 문인들이 민족의 숙원이던 해방이 되고, 그 독립된 국가에서 문인들이 자유를 누리 “새 歷史 앞에 大行進의 때가 왔다. 우리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곧 새 역사의 창조과제에 응해야 하겠다.”고 앞다투어 나설 때도 무조건 시작할 수만은 없다고 제동을 걸고 나선다.

「文學建設에 대한 提案」을 쓰라는 것이 編輯者의 注文이었으나 現在의 내게 있어는 文學建設의 全體的인 方針에 對한 提案보다는 먼저 首途에 있어 文學人으로서 自己의 立場과 才能 等에 對한 嚴肅한 反省과 批判이 前提되는 것 같다.

暴惡한 牧者의 책속에 물려가는 洋의 때와 같이 朝鮮民衆이 日本軍國主義의 막다른 골목을 向하야 물러 갈 때에 그 暴虐한 지배자의 책속이 特別 知識人을 注目하고 그 頭上을 向하야 던져진 것이 事實일는지 모르나 問題는 그런 時期를 通過하는데 있어 歷史가 設定한 두 개의 門, 넓은 門과 좁은 門에 對하야 그것이 藝術家 文學者이기 때문에 걸어가기 어려운 그 좁은 門, 苦行의 길을 選擇하야 걷지 못하고 자기 쉬운 넓은 門, 手坦한 大道를 쉽게 취했다는 點이다. 그리고 手坦한 大道란 여기서 平凡한 길을 擇했다는 意味 以上の 一定한 反省을 藝術家, 文學者에게 要求하고 있지 않을까? ²⁶⁾

향후 전개될 문학건설의 방침에 대한 제안이나 결의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문학인으로서 자기 입장과 재능 등에 대한 엄숙한 반성과 비판’이라 못박은 백철의 생각은 당시 그 어떤 문학자보다도 <양심적>이었다. 아울러 백철은 문학자에 대한 반성의 요구가 외부의 지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 요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거대한 건설을 앞에 두고 소극적으로 현실에서 은둔해 버리자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자기 반성의 과정을 통해 현실로 나아가는 하나의 血路를 발견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백철은 문학의 지도적인 작업과 그 위치는 결백한 이들에게 맡기고 과거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것을 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일보 물러서서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枝葉같이 피는 것을 하나씩 究明해 가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백철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구호만 난무하던 해방 정국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무엇 보

25) 백철, 앞의 책, 301쪽

26) 백철, 「文學의 建設」(《朝鮮週報》1945. 11. 9), 7쪽

다 필요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이와 같이 개인 차원의 자기 반성이 집단적 논의로 바뀐 처음의 것이 소위 ‘아서원좌 답회’²⁷⁾이다. 이 모임은 1945년 12월 12일 오후 6시에 ‘雅敍園’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韓雪野, 李箕永, 權煥, 韓曉, 朴世永, 林和, 金南天, 李源朝, 金永健, 韓載德과 출판사 측의 趙碧岩, 朴榮禧, 池奉文 등이었다. 이 좌담회에서는 당시 부각되고 있던 문학 혹은 문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토론하였다. 그 가운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새로운 고민’, ‘소설 못쓰는 이유’, ‘사상과 실천’, ‘세계관에 대하여’ 등의 항목이다.

한설야는 8·15이후 막연하게나마 무엇을 써보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쓸 수가 없어 ‘새로운 고민’이라고 고백한다. 김남천도 그러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박세영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

요즘 發表한 시를 읽어보았읍니다마는 그 시들이 모두 解放되었다는 感激뿐인 것 같더군요.”²⁸⁾

이 말은 당시 발표된 시들의 대부분이 해방의 감격만 노래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것에는 무관심했다는 의미이다. 즉 과거를 돌아보는 일과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들은 넘쳐났지만 소설은 그에 비해 빈약했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김남천은 ‘소설 못쓰는 이유’를 역량 부족으로 돌렸다. 여기에 대해 임화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머리 속에 現實을 捕着할 힘이 없습니다. 現實은 混亂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現實만을 쓰는 것이 現實의 文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近者에는 解放以後 것만을 쓰라고 하는 傾向이 보이는 것 같더군만요. 그 以前의 것을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結局 作品을 쓰고 못쓰는 것은 素材의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또 作家의 精神的 準備 問題입니다.²⁹⁾

임화는 현실 포착 능력의 부족을 소설 못쓰는 이유로 들고 있다. 능력 부족을 야기한 원인은 임화의 말처럼 현실의 혼란 때문이기도 하다. 현실이 극도로 혼란하면 미래 사회의 전망이 불투명할 것이고 따라서 작가는 소재를 포착하기 힘들어 진다. 때문에 작가는

27) 「조선문학의 지향—문인 좌담회 속기록」(《예술》1946. 1월호)

28) 「조선문학의 지향」, 5쪽

29) 위의 글, 5쪽

소설을 쓰기 어렵게 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소설 못쓰는 이유가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임화가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작가의 정신적 준비'에 있었다. 이 정신적 준비 부족은 신념 부족에서 야기된다. 이 점을 백철은 분명히 하고 있다.³⁰⁾ 해방 전에 문학가로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작가가 걸어가야 할 '血路'를 고통으로 견디었다면 해방이 되었을 때 주저없이 소설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인들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혈로'를 포기하고 '넓은 길', '쉬운 길'을 택했다. 그리고 맞은 해방 정국에서 문인들은 정신상의 괴리를 갖게 되었고, 거기에 편승한 불안정한 정국은 작가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백철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소설 못쓰는 반 이상의 책임은 신념 부족에 있다. 한설야가 이 고민의 해결책으로 '확고한 사상성'의 소유를 제시하지만, 그보다 앞서 철저한 자기비판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비판이 전제되지 않은 채 획득되는 어떤 사상성도 새로운 위기가 도래하면 여지없이 또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화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내 自身の 告白을 합니다. 나의 苦悶은 내 말과 行動을 같이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苦悶의 過程, 마음의 鬭爭만도 革命的 文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 自身이 그런 過程을 쓰고 싶었고 동무들 作品에서 期待했던 바입니다.³¹⁾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해방된 조국에서 많은 문인들에게 공통의 고민거리였을 것이다. 일제시대에도 그러했고 해방된 조국에서도 여전히 말과 행동에 불일치를 보이는 것은 '조국 건설'이라는 대명제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증폭되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항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작가들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한 고민의 과정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 그것은 '마음의 투쟁' 과정을 그려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 고백이며, 자기 비판이며, 양심 회복일 것이다. 임화 자신은 '마음의 투쟁' 과정을 쓰고 싶었고, 다른 작가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소설 못쓰는 작가들의 진정한 고민거리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마음의 투쟁 과정을 그려내야 함이 마땅하나 그것을 그려냈을 때 독자들—당대 表現으로 하면 '인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 민족의 반역자라는 오명을

30) 백철, 「문학의 건설」, 7쪽

31) 「조선문학의 지향」, 5쪽

벗을 길이 없겠기 때문이다. 당연히 작가들은 이상협's 말처럼 해방에 대해 “특수한 개인의立場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朝鮮民族 전체의 차원에서 감격”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과거 행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김윤식 교수는 ‘운동으로서의 문학’과 ‘작품으로서의 문학’으로 나누어 임화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³²⁾ 그는 임화의 경우 해방되면서 ‘작품으로서의 문학’ 쪽에 기울어 있었던 반면 한철야는 ‘운동으로서의 문학’에 기울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임화의 고민이 ‘운동으로서의 문학’에 미진했다는 것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을 꼼꼼히 되짚어 보면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구석이 있다. 이 좌담회의 기본 성격은 현재의 고민이 어디에서 연유하고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고민의 유래를 따져갔고, 그 원인이 과거—해방 전—의 작가 정신 혹은 작가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임화가 말한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해방 후의 그것보다는 일제시대의 그것에 더 큰 비중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임화의 고민은 ‘현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성’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원남동 모임에서의 임화의 말이다. 이태준이 ‘Y씨’와 ‘L씨’를 신랄하게 비난했을 때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그때 Y씨가 한 말이 「정치인들에 비하면 우리 문학인들의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들 의사가 그렇다면 물러가지요」하고 퇴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내가 보기에는 그때 난처한 자리에 선 사람은 林和라고 보았다. Y씨더러 하는 말이 「따지고 보면 누구나 다 허물없는 사람이 있겠오마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보니 얼마동안만 쯤 있다가 다시 같이 일할 기회를 봅시다」라고 어름어름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하영든 그렇게 하여서 Y씨와 L씨 두 사람이 퇴장을 하고 돌아갔다. 이 때에 문학인들이 모인 자리의 분위기가 어떤 것이든가 잘 짐작이 될 것이다.³³⁾

“따지고 보면 누구나 다 허물없는 사람이 있겠오”라는 말은 임화도 과거의 행적에 무언가 쟁기는 것이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과거에의 쟁김은 비단 임화의 것만은 아니었다.

權煥 自己의 任務를 다하지 못했고 鬭爭生活에 參加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現段階에서의 作品活動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韓雪野 鬭爭生活에 參加하지 못하고 合理的 生活을 하고 있었다는 데 現代의 苦悶이 있을 겁니다.³⁴⁾

32)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서울대출판부, 1989), 74~5쪽

33) 백철, 『문학자서전』, 300~301쪽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고 투쟁생활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권환이나 “투쟁 생활에 참가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한설야도 그 켄김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참회적 고백은 ‘살고 싶다’라는 강인한 생명 욕구 때문에 문학의 진정성에서 벗어났던 자신에 대한 양심선언이다. 임화가 말한 ‘고민의 과정, 마음의 투쟁’을 글로 써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양심 선언과 자기 반성을 민족 앞에 글로 써내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임화는 “반성하는 길밖에 없다”고 못박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 이원조는 “결국 자기반성의 내적 준비가 있어야 할 것뿐”이라고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기에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가의 내적 반성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반성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봉황각 좌담회’³⁵⁾에서 제공해 준다. ‘아서원 좌담회’가 열린 후 보름여만에 봉황각에서 金南天·李泰俊·韓雪野·李箕永·金史良·李源朝·韓曉·林和 등이 참석한 문학자의 자기비판이 본격적으로 행해진다.³⁶⁾ 아서원에서의 좌담회가 문학 전반에 걸친 것이라면 봉황각에서의 그것은 주로 문학자의 자기비판에 국한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태준, 김사량, 임화의 발언이다. 우선 김사량³⁷⁾의 발언부터 보기로 하자.

작년 상해에 갔을 때 어느 호텔에서 중경측의 공작원에 연락을 받았으나 그때는 국내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자기

34) 「조선문학의 지향」, 5~6쪽

35) 「문학자의 자기 비판—좌담회」(《인민예술》 2호, 1946. 10)

36) 아서원 좌담회는 1945년 12월 12일에 열렸고, 봉황각 좌담회는 그 부기에 “작년(1945년) 선달 그믐께”라고 밝혀 놓았다.

37) 김사량은 평양 태생으로 평양고보 5학년 때 동맹휴교사건으로 퇴학을 당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佐賀高校를 거쳐 東京大學 독문과를 졸업한다. 1936년 처녀작 「土城廊」을 일본어로 발표하며, 1939년에 발표한 「光の中に」가 1940년 상반기 아쿠타가와(芥川)상 후보작으로 결정된다. 1941년 12월 9일 일본에서 ‘사상범에방구금법’에 의해 예비 검속되어 50일간 구류, 남방군의 종군작가가 될 것을 강요받지만 거절한다. 1949년 1월 29일 석방되자 귀국하여 평양에 거주하며 집필활동을 하다가 1943년 2월 일본보도반에서 탈출하여 팔로군의 조선의용군에 종군기자로 참가한다. 1945년 국민총력조선연맹 병사후원부의 在支조선출신학도병 위문단원으로 중국에 파견되었다가 화북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에 가담, 해방이 되자 조선의용군 선견대에 가담하여 귀국한다. 1946년 3월 북조선예술가총연맹의 국제문화부 책임자, 6월에 평안남도 예술연맹 위원장에 취임한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종군기자로 북한군과 함께 남하하나, 그 해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의 1차 후퇴시 강원도 원주 부근에서 심장병으로 낙오한 뒤 소식이 끊겼다.

국토를 떠나서는 투쟁도 없으며 혁명도 없다는 견지에서 보면, 비록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이 최대의 반항처럼 보일만큼 숨돌리기조차 어려운 사정이긴 하였으나 그래도 국내를 탈출하여 연안으로 갔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서는 하나의 도피가 아닐 수 없었지요. 하나의 로맨티시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국내의 주체적 혁명역량과 연락을 못 이루었던 몸으로서, 해외의 혁명역량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또 그곳에 뛰어들어서라도 같이 싸우겠다는 정열과 그들이 간고히 싸우고 있는 사실을 기록화하여 국내동포 앞에 알리겠다는 작가적 야심—이런 것이 나의 연안행의 동기였습니다.³⁸⁾

김사량은 국내에 남아 살아 있는 그 자체가 일제에 대한 최대의 반항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로 간주될 수 있는 연안행을 감행했다. 그 이유는 1) 해외 혁명 역량에의 꿈, 2) 그곳에서나마 일제와 싸우겠다는 정열, 3) 그들의 투쟁 사실을 기록화하여 국내 동포에게 알리겠다는 작가적 야심 때문이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작가적 야심’이다. 이 작가적 야심 때문에 그는 일어로 작품을 써냈던 것이고, 그것이 벌미가 되어 이 좌담회에서 이태준으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게 된다. 일어로 작품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이태준의 비난이 있기 전에 먼저 양심 고백을 하지만, 과거의 행적에 대해 좌담회에 참석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당당함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 당당함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나로서는 우리말로 쓰는 것보다도 좀 더 자유스러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탄압이 덜할까 생각하고 일어로 썼다느니보다 조선의 진상, 우리의 생활 감정 이런 것을 리얼하게 던지고 호소한다는 높은 기개와 정열 밑에서 붓을 들었던 것이지만, 지금 와서 반성해 볼 때 그 내용은 여하간에 역시 하나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바입니다.³⁹⁾

김사량은 어느 나라 말로 썼느냐보다 무엇을 썼느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즉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김사량은 좌담회에 참석한 그 누구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남천은 「或る朝」, 한설야는 「血」, 「影」, 이기영은 「鐵を屈る話」 등을 일본어로 써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이들에게 전혀 <꿀릴 것>이 없었다. 다만 이태준은 일본어로 그 어떤 글도 써지 않았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태준은 김사량이 일본어로 창작한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한다. 그러나 일본어로 창작을 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김사량은 이태준에게도 당당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용 때문이었다. 이태준이 이무영과 함께 일본

38) 「문학자의 자기비판」(송기헌·김익곤 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2, 태학사, 1991), 166쪽

39) 「문학자의 자기비판」, 166쪽

의 「대동아전기」를 번역하고, <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사소설로 흘러들거나 칩거하여 낚시질로 세월만 남고 있을 때, 김사량은 사상범으로 몰려 구속되거나 팔로군의 조선의 용군 중군기자로, 화북조선독립연맹 조선의용군에 가담하면서 “조선의 진상, 우리의 생활 감정 이런 것을 리얼하게 던지고 호소한다는 높은 기개와 정열” 때문에 일본어를 <빌려서> 쓰긴 했지만, 조선의 참상을 계속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임화가 것처럼 고민했던 ‘말과 행동의 불일치’라는 기준에서 보면 김사량은 좌담회에 참석한 그 누구보다도 우위에 있었다. 그래서 김사량은 당당할 수 있었다. 그런 당당함 때문에 이때까지 누구도 제안하지 못했던 ‘신문화 재건’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김사량은 당당히 제시한다.

위대한 우리의 신문화 재건 도상에 있어서는 물론 어떠한 경계선도 필요하겠지만, 사심·사감정 이런 것으로 훌륭한 일꾼들을 돌려치거나 내어던진다는가 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섹트적인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자기내의 과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여 자기만이 가장 충실한 민족문화인이요 계급문화인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급급치 말고, 과거를 청산하는 새 출발에서 벌거숭이가 되어 모두가 뉘우치고 반성한 뒤에 자기에 대한 공개장 같은 것을 쓰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⁴⁰⁾

과거 행적에 대한 철저한 반성 뒤에 ‘자기에 대한 공개장’을 써내자고 <당당하게> 말하는 김사량에게 김남천과 임화는 동의를 한다. 그러면서 임화는 한 발 더 나아가 내용과 형식보다도 더 근원적인 데에서 자기비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비판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느냐 할 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리도 없고 사실 그렇지도 않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인데, 가령 이번 태평양 전쟁에 만일 일본이 지지 않고 승리를 한다—이렇게 생각해 볼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생각했느냐고 묻는 것이 자기비판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만일 내가 한 명의 초부로 평생을 두메에 묻혀 관내자는 한줄기 양심이 있었는가? 아니면 내 마음 속 어느 한 귀퉁이에 강렬히 숨어있는 생명욕이 승리한 일본과 타협하고 싶지는 않았던가? 이것은 내 스스로도 느끼기 두려웠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입밖에 내어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 표시되었을 리 만무할 것이고 남이 알 리도 없을 것이나, 그러나 나만은 이것을 덮어두고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자기비판의 양심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적인 한 점을 덮어둔 자기비판이란 하나의 허위상 가식이라고 생각합니다.⁴¹⁾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 강렬한 생명 욕구 때문에 일본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

40) 「문학자의 자기비판」, 167쪽

41) 「문학자의 자기비판」, 168~9쪽

을 가졌겠는가, 그렇지 않았겠는가 스스로 고백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바다. 임화는 내면 세계까지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기 비판이 아니면 전부 가식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임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김남천과 이태준은 굴레를 가지고 있다. 김남천은 「등불」에서, 이태준은 「해방전후」에서 똑같이 ‘살고 싶다’라는 ‘강렬한 생명 욕구’를 드러낸 바가 있었다. 결국 해방 정국에서의 그 누구도 민족적 양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래서 김사랑은 “자기네의 과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여 자기만이 가장 충실한 민족문화인이며 계급문화인”인 척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태준이 제동을 걸고 나선다.

나는 8·15 이전에 가장 위협을 느낀 것은 문학보다 문화요, 문화보다 다시 언어였습니다. 작품이니 내용이니 제 2, 제 3이었지요. 말이 없어지는 위기가 아니었습니까? 이 중대간두에서 문학 운운은 어리석고 우선 말의 명맥을 부지해 나가야 할 터인데 어학관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검거되고-예의 홍원(洪源)사건 아닙니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분들은 직업을 잃고, 조선어의 잡지 등 신문, 문화간행물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조선문화를 논할 여지조차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점엔 소극적으로나마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조선어 말살정책에 협력해서 일본말로 작품활동을 전향한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여간 중대한 반동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같은 조선작가로 최근까지 조선어와 운명을 같이 하려하지 않고 그렇게 쉽사리 일본말에 붓을 적시는 사람을 은근히 가장 원망했습니다. 물론 사상에까지 일체에 협력한 사람과 그냥 용어만을 일어로 한 사람과 구별은 해야 할 줄 압니다만.⁴²⁾

이태준이 김사랑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어에 관한 것이다. 일본어로는 어떤 작품도 써내지 않았다는 자부심은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문학을 논하는 마당에 가장 우선되는 덕목일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어는 민족혼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조선어말살정책과 관련한 검거사건을 굳이 꺼집어 낸 것도 예의 민족혼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창씨개명을 하라고 할 때도 기어코 <뻘뻘> 이태준에게 있어 조선어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었다. 그는 민족문학과 반민족문학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언어를 설정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어에 대한 이태준의 애착은 해방 전의 한 좌담회를 통해서도 익히 알 수 있는 바다.

1939년 小林秀雄과 더불어 만주여행 중이던 林房雄이 서울에서 한국의 문인들과 좌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 일본 측에서는 秋田雨作・林房雄・村山知義・辛島馬曉・古川兼秀 등이, 한국 측에서는 정지용・임화・유진오・김문집・이태준・유

42) 「문학자의 자기비판」, 169쪽

치진 등이 참석하였다. 거기서 이태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잠깐, 秋田 선생께 물어보겠는데 조금 전 선생께서는 內地語(일본어)로 써도 조선어로 써도 상관없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처지로서는 (이 말은) 중대하기에, 이 토론 과제와는 다소 어긋나는 것이나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인 선배들쪽에서는 우리 조선 작가가 조선어로 쓸 것을 속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본어로 쓸 것을 보다 희망하고 있습니까?⁴³⁾

이태준에게 있어 언어의 문제는 절실했다. 『문장강화』 등을 통해 조선어에 대한 애착을 남달리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는 그것 때문에 임화나 김남천, 이기영, 한설야 등에게 당당할 수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태준의 자գ심을 김사랑이 여지없이 무너뜨린 것이다. 조선어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민족적 양심에 거리낌없이 당당했던 이태준에게 김사랑은 언어가 아니라 내용의 중요성을 들어 그 당당함을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태준은 굳이 언어의 중요성을 들어 김사랑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족적 양심에서, 그리고 문단적 지위에서 김사랑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사랑 역시 만만치 않았다. 다시 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절망적인 구렁텅이에 빠졌으면서도 희망은 꼭 있다고 생각한 분들이 붓을 쥐은 후 그나마 문화인적 양심과 작가적 정열을 어디다 두셨는가요? 여기서 문제는 전개된다고 생각합니다. 쉽사리 갈라 놓자면 문화를 사랑하고 지키는 문화자와 또 그래도 싸우려고 한 문화자, 이 두 갈래, 그러나 일언으로 말하자면 문화인이란 최저의 저항선에서 이보되까, 일보전진 하면서도 싸우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썼느냐가 논의될 문제이지, 좀 힘들어지니까 또 옷밥이 나오는 일도 아니니까 속 들어가 팔짱을 끼고 앉았던 것이 드높은 문화인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하는 데는 나는 반대입니다. 모두 앞날의 광명은 믿었던 처지로 만약 붓을 표면에서는 쥐었으나 그래도 골방 속으로 책상을 가지고 들어가 그냥 끊임없이 창작의 붓을 들었던 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 모자를 벗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⁴⁴⁾

김사랑은 문학자를 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문화를 사랑하고 지키는 문학자'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싸우려는 문학자'이다. 물론 김사랑은 후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문학자에게 도구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가지고 싸웠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싸웠느냐, 끝까지 싸웠느냐 그러지 못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뒷전에서 팔짱만 끼고 앉아서 '드높은 문화인'인 체

43) 『조선문학의 장래-좌담회』(《문학계》1939. 1),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한길사, 1984), 389쪽 재인용

44) 『문학자의 자기비판』, 170쪽

하는 자들은 분명히 끝까지 싸운 자들보다 아랫질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태준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붓을 쥐고 침묵을 지킨 분보다는 우리 민족에게 해독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는 조선어를 한마디라도 더 써서 퍼뜨린 편이 나았다”는 말로 자기주장을 철회하면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해방 정국에서 펼쳐진 문인들의 이와 같은 자기비판은 다른 분야의 것보다 훨씬 더 깊어 있으며 진실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비판의 내용을 실천하려 했다는 점이다. 문인들에게 있어 우선되는 실천은 자기를 비판한 내용을 만인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글쓰기를 의미한다. 이제 이태준의 「해방전후」를 통해 어떻게 자기고백이 행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IV. 「해방전후」에 나타난 자기고백의 특성

「해방전후」(『文學』 1946. 8)는 ‘어느 작가의 수기’라는 부제에서 이태준 자신의 자전적 소설임을 알 수 있다. 해방을 전·후한 삶의 과정을 ‘현’이라는 주인공을 내세워 담담히 고백하고 있는 이 소설은 해방 전의 이태준의 행적과 해방 후의 변모된 행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아울러 가중되는 탄압을 견디기 위해 최소한의 대일협력으로 살아 견딘 한 지식인의 생존적 본능이 해방 후 어떻게 치환되어 역사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현’은 <역사적> ‘팔월 십오일’을 아무것도 모른채 지냈다. 그 이튿날 아침에야 서울 친구의 ‘급히 상경하라’는 전보 때문에 육감적으로 알아채긴 했지만 주재소 순사들의 여전한 행동에 해방을 반신반의 한다. 서울로 가는 차에서 겨우 해방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확신 뒤에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 된다.

현은 고개를 푹 숙으었다. 조선이 독립된다는 감격보다도 이 불행한 동포들의 열 빠진 꼴이 우선 울고 싶게 슬펐다.

(이게 나 혼자 꿈이나 아닌가?)

현은 철원에 와서는 꿈 아닌 「경성일보」를 보았고, 찾아만 한 사람들을 만나 굳은 악수와 소리나는 우름을 울었다. 하늘은 맑아 박꽃 같은 구름송이, 따에는 무럭무럭 자라는 곡식을 옥어린 녹음을 어느것이고 우러러 절하고 소리질르고 날뛰고 싶었다.⁴⁵⁾

45) 이태준, 「해방전후」(『해방문학선집-단편집 1』, 종로서원, 1947), 141쪽

이태준에게 해방은 ‘슬픈 마음’과 ‘소리질르고 날뛰고 싶은 마음’이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불행한 동포들의 얼빠진 꼴이 슬퍼다 했지만 그 슬픔은 엄밀히 따지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

(철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굴욕만으로 살아온 인생 사십, 사람의 열락도 청춘의 영광도 예술의 명예도 우리에게 없었다. 일본의 패전이라면 몰라 일본에 유리한 전기(戰記)를 내 손으로 주물르는건 무엇 때문인가?)

현은 정말 살고 싶었다. 살고 싶다가보다 살아 건되어 내고 싶었다.⁴⁶⁾

정말 살고 싶은 생물적 본능은 비단 ‘현’만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은 굴욕만으로 살아왔다는 슬픔에 젖어 해방된 조국에 떳떳할 수 없었다. 적당한 핑계로 창씨개명도 하지 않았고, 조선문인보국회 결기대회에서 소설부를 대표하여 진언하라는 것도 대회장에서 슬그머니 사라짐으로써 대일협력을 애써 기피한 ‘현’이었다. 나름대로는 친일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나 점증하는 압력에 ‘정말 살고 싶어’ ‘현’은 이무영과 함께 대동아전기를 번역하며, 조선문인보국회 시국강연회장에도 갔다. 따지고 보면 이 정도의 대일협력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현’은 일어로 어떤 작품도 써지 않았다. 동물적 생존 본능을 위해 민족적 양심을 최소한의 선에서 팔아넘기는 대신 자신의 정신만은 훼손하지 않으려 애썼던 ‘현’의 내면 세계에서 자연히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현’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의 정신은 문화와 관련된 것이다. 문화에 대한 그의 생각은 시국강연회 장에서의 한 사건을 보는 시각에 담겨 있다.

현의 마음을 측은케 한 것은 그 핏기 없고 살 여윈 만주국 작가의 서투른 일본말로 의 축사였다. 그 익지 않은 외국어에 부자연하게 움직이는 얼굴은 작고 슬프게만 보였다. 조선문인들의 일본말은 대개 유창하였다. 서투른 것을 보다 유창한 것을 보니 유쾌해야 할 터인데 도리혀 알미운 것은 무슨 까닭인가? 차라리 채소리 이외에는 옳길줄 모르는 개나 도야지가 얼마나 명예스러우라 싶었다. 약소민족은 강대민족의 말을 배우기 시작한 것부터가 비극의 감수(甘受)였던 것이다.⁴⁷⁾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태준에게 있어 언어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었다. 이태준의 본신인 ‘현’이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는 조선문인들이 알미운 것은 당연했다. ‘현’을 지탱

46) 「해방전후」, 119쪽

47) 「해방전후」, 126쪽

시킨 마지막 자존심은 언어였다. 강연회 장에서 ‘괏소국가의 문화행정의 야만성’을 선명히 느끼게 한 동인도 말에 있었다. ‘현’은 언어는 곧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그 언어를 지키기 위해 애써 창씨개명도 피했던 것이다. 언어만 지키면 민족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용이 더 쿠린 일본어를 배설해야 될” 자신은 “만주국 작가보다도 더 비극적”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현’의 작가적 삶을 곱곰이 되짚어 보게 만든다. 일제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한 지식인의 나약함, ‘불끈거리는’ 내면의 소리를 가혹한 검열제도를 핑계로 인종해야만 했던 작가 정신, 어쩔 수 없는 생활인으로 전락해 버린 소시민성, 그런 것들이 ‘굴욕만으로 살아 온 인생 사십’의 전부였다. 따라서 해방은 그에게 ‘슬픔’인 동시에 ‘기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의 슬픔은 잠시였다. 그가 지켜낸 언어는 어떤 작가들보다도 그를 정당하게 만들었다. 그에게 있어 조선의 해방은 곧 조선어의 해방이었다.

言語는 (……) 民族의 最初이며 最後인 永遠의 文化인 것이다. 그러므로 言語는 어느 文化보다도 그 民族과 運命을 가지 할 것이다. 朝鮮語가 없어질 번 했으니 朝鮮民族이 性格적으로 없어질 번 했고, 朝鮮民族이 解放되었으니, 그 瞬間부터 같이 解放된 것도 朝鮮語인 것이다.⁴⁸⁾

‘조선어의 해방’에 끼친 공과를 따져 논공행상을 한다면 당연히 최상의 자리는 ‘현’의 몫이었다. 심지어 그의 양심 깊숙한 곳에서 늘 아킬레스군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동아전기’조차도 <조선어로> 번역한 것이니, 넓은 범주에서는 조선어를 배반한 것이 아니었다. 원남동 모임에서 ‘Y씨’와 ‘L씨’를, 봉황각 좌담회에서 “조선어와 운명을 같이 하려 하지 않고 그렇게 쉽사리 일본말에 뜻을 적신” 김사랑을 몰아부칠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여기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현’이 목숨처럼 소중이 여긴, 그의 정신적 힘의 근원이었던 ‘조선어’를 지켜낸 양심으로 김사랑 등을 몰아부쳤을 때의 정당성 여부이다. 김사랑이 무엇을 썼느냐를 강조할 때, 무엇으로 썼느냐로 맞섰을 때의 ‘현’의 그 언어는 어떤 언어였는가를 살펴보면 ‘현’이 가진 조선어에 대한 정신적 뿌리의 실체를 알 수 있다.

48) 이태준, 「국어에 대하여」(《대조》 1946. 7), 150쪽

言語의 歷史란 民族 그것의 歷史로서 朝鮮民族의 運命 그대로 朝鮮語의 길도 기구했고 環境이 不遇했던 만큼 朝鮮語의 모든 問題는 우리 有志들에게 學問으로의 關心이기보다 思想으로 觀念되었고 科學의이기보다 感傷의인 愛撫의 對象이 되었던 것도 事實이었다.⁴⁹⁾

“일제 권력에 아침해 조선어 말살에 채찍을 가한 문학가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조선어에와 조선어의 제작자인 우리 민족 앞에 경건히 참회”한 후에 다시 붓을 들어야 한다고 강변한 이태준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신조차도 일제시대에 조선어를 과학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감상적인 애무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시인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태준에게 있어 조선어의 해방은 ‘감상적인 애무의 대상’을 다시 회복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근대성>에서 빼놓지 못할 중요한 용어다. 분석적이니 이성적이니 하는 말이 ‘과학적’이라는 말과 동케에 놓인다면 결단코 통합적이니 감성적이니 하는 말은 ‘감상적’이란 말과 동의어이다. 따라서 이태준에게 있어서 조선어는 감정적 차원의 것이었지, 이성적 차원의 것은 아니었다. 그가 이성적 차원에서 판단했다면, 내용 여하를 떠나 ‘일본어’로 소설을 써낸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한 김사랑을 몰아붙일 수는 없었다. 김사랑의 논리에 이태준은 감정으로 맞선 것이다.

지나친 감정은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킨다. 해방 정국에서 우선의 과업은 자기 비판과 양심 선언이다. 그것은 감정 차원에서 이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성의 논리로 접근해 가야 미·소를 정점으로 전개되고 있던 복잡한 난국을 풀 수 있었다. 김사랑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양심선언이라는 감정의 문제를 먼저 풀고 난 연후에 ‘무엇을’이라는 이성의 문제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태준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이 길을 직시하면 그가 남보다 먼저 월북을 단행하고, 소련기행을 하여 ‘붉은 광장’을 예찬하는 삶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하튼 정신적 지조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판단한 ‘현’이 해방 후 보인 첫 번째 행보는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를 찾아간 것이다. 이 협의회는 해방된 다음 날 한청빌딩에 걸려 있던 ‘조선문인보국회’ 간판을 대신 한 ‘조선문화건설본부’가 주축이 되어 만든, 문화분야를 총망라한 단체였다. 그 핵심원들은 과거 카프해소파에 속하던 임화, 김남천 등이었다. 이상하게도 ‘현’은 ‘구인회’ 시대나 ‘문장’ 시대에 것처럼 경원시했던 좌익 단체를 <스스로> 찾아나섰다. 그 이유는 분명했다. 언어를 지킴은 궁극적으로 민족을 지키

49) 이태준, 「국어재건과 문학가의 사명」(『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 174쪽

는 것이고, 그 마지막 과수꾼이었던 ‘현’이 <좌익만> 제멋대로 발호하여 ‘민족 상쟁 자멸의 파탄’을 초래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현’은 <민족의 조정자>가 되어 나선 것이다. 그가 지켜낸 언어는 특정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민족의 것이고, 조선어의 해방은 민족 <모두>가 공유해야 할 기쁨이었다. 그 기쁨을 특정 단체가 독점한다거나, 특정 단체 때문에 다시 잃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현’은 그곳에서 ‘조선문화의 해방, 조선문화의 건설, 문화전선의 통일’이라는 그들의 구호에 매료당한다. ‘문화전선의 통일’이라는 구호는 ‘조선어의 해방’이 민족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는 ‘현’의 생각과 잘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좌익에 의한 민족 분열에 대한 염려는 기우였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의 구호가 자기비판 및 국제 정세와 조선과의 관계를 심사숙고한 결과임을 확인한다. 그 때문에 우익측 인사들이 찾아와서 ‘우리끼리 따로 모이자’고 말할 때 “새 조선의 자유와 독립은 대중의 자유와 독립이라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단호히 거절한다. 그런 ‘현’의 중립자적인 단호함은 두 번의 사건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하나는 적색데모 사건시 ‘상당한 책임자’의 하나가, 묶어 놓았던 연합기 중에서 유독 쏘련기만을 행렬 위로 뿌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만류하는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이 있는 다음 날 ‘문협’ 회관에 ‘조선인민공화국 절대지지’라는 현수막이 드리운 것을 보고 ‘문학건설본부’ 서기장과 함께 비가 오는 옥상에 올라가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걷어내는 사건이다. 그 현수막을 걷어내면서 ‘현’은 이렇게 다짐한다.

(그렇다! 나하나 등신이라거나, 이용을 당한다거나 그런 조서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에나 신경을 쓰는 건 나 자신 불성실한 표다!)⁵⁰⁾

민족적 조정자이기를 자청했던 ‘현’이 민족을 위해 ‘등신이라거나, 이용을 당한다거나’ 하는 조롱을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성적인 사고와는 멀다. 그것은 순전히 감정 차원의 것이다. 따라서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조선공산당도 <감정>으로 동조할 수 있었고, 그들이 내세운 ‘민족의 자본주의적 혁명’도 민족의 분열과 상쟁을 최소한으로 저지할 수 있는 ‘조선민족을 위해 무엇보다 다행한 일’로 받아들여 졌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문협’이 내세운 구호가 박헌영의 8월테제⁵¹⁾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문협’ 배후에는 조선공산당이 놓여 있었고, 그들이 내세운 부

50) 「해방전후」, 150쪽

51) 박헌영의 8월테제에 대해서는 김남식의 「박헌영과 8월테제」(『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를 참조할 것.

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전술적 차원에서 ‘문협’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문협’으로 대표되는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주체세력은 ‘현’의 말처럼 ‘치밀한 관찰과 정확한 정세 판단’에 의해 해방 정국을 읽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은 여전히 ‘감상적 애무’로 그것을 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현’은 월북으로, 소련기행으로 이어지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원조는 조선에서 산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채만식, 박태원, 김남천 등 세 명이라고 말하면서 이태준을 지칭하여 ‘산문가라기보다 시정신이 풍부한 작가⁵²⁾라 말한 바 있다. “시정신이 풍부하다”라는 말은 이성적 차원에서 현실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 시정신이 풍부하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해방기의 이태준의 경우 시정신적 현실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은 틀림없다.

결국 해방정국에서 ‘대중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애쓴 ‘현’의 행보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원인은 감상의 과잉에서 찾을 수 있다. ‘현’—이태준—의 이런 모습을 김윤식 교수는 ‘자기희생의 성자적 모습’이라고 지칭했거니와⁵³⁾ ‘현’의 사행 착오를 지적하기 위해 온 임정지지와 ‘윤직원’의 ‘일제시대에 그처럼 구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내 부지해 온 상투’와 ‘현’이 지키려고 애써 온 ‘조선어’는 등질의 것임을 직시한다면 ‘윤직원’ 또한 감상의 사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해방전후』에서 보여주고 있는 감상 우위의 자기고백은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으로 승화되었다면 훨씬 더한 가치를 지닐 수 있었을 것이다.

V. 결 론

산적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해방정국의 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은 자기고발이었다. 작가적 양심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해방의 주체 세력으로 민족 앞에 나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서 많은 문인들은 나름대로의 자기비판을 했고, 글쓰기 과정을 통해 양심회복을 꾀했다.

특히 이태준의 경우 『해방전후』를 통해 그러한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다. 한 소시민이 겪어야 했던 대일협력 과정에서의 내면적 갈등과 그 갈등을 해방과 함께 풀어내는 과정을 이 소설은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선 자기비판으로 인해 이태준은 해방정국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었

52) 「창작합평회」(《신문학》 1946. 6), 163쪽

53)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상사론』(일지사, 1992), 192쪽

다. 그런 결과가 월북, 소련기행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현’으로 형상화 된 이태준은 독립된 조국을 위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신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 이같은 현상은 결국 냉철한 자기비판이 아닌 감정적 자기비판에 무게 중심이 실린 탓으로 이해된다.

덧붙여 여기서 다루지 못한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 김동인의 「망국인기」, 지하련의 「도정」, 이광수의 「나의 고백」에 대한 자기비판의 특성은 장을 달리 하여 논할 것을 밝혀 두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기초 자료

- 건설, 대조, 동아일보, 백민, 신문학, 예술, 인민예술, 조선주보,
이태준문학전집, 서음출판사, 1988
한국소설문학대계, 동아출판사, 1995
한국현대문학자료총서, 거름, 1987
한국현대소설이론자료집, 한국학진흥원, 1987

2) 논문 및 단행본

-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5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상사론』, 일지사, 1992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출판부, 1989
김윤식 편, 『해방공간의 민족문학 연구』, 열음사, 1989
김희민 편, 『해방 3년의 소설문학』, 세계, 1987
박현채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8
백철, 『문학자서전』 후편, 박영사, 1975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0

송기한·김외곤 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 1~3, 태학사, 1991

신형기, 『해방기 소설 연구』, 태학사, 1992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83

정호웅, 『해방공간의 자기비판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 1993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